

## [ 사회 ]



인터넷 TV로... DMB폰으로...

## 월드컵 시청 새 트렌드

포털사이트 영상 하루 86만명 접속

실시간 댓글 중계 통해 현장감 만끽

지난 10일 새벽, 집에 TV가 없는 자취생 최승현(24)씨는 2006 월드컵의 개최국인 독일과 코스타리카의 개막전을 한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동영상 중계로 지켜봤다.

클로제의 정확한 해설은 3분 후 접속 화면으로 인터넷 창에 떴다. 비록 실시간 중계는 아니었지만 최씨는 사이트에 마련된 네이션들의 '실시간 댓글 중계'를 통해 경기장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독일 월드컵 개막 후 인터넷이나 DMB폰을 통해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문화가 새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에 따르면 월드컵 경기가 열린 첫 날인 10일 하루, 다음의 월드컵 영상 중계 폐이지에 총 86만 명이 접속해 영상을 이용했다. '다음은 경기와 3~5분 가량의 시차를 두고 하이라이트 영상을 제공하는 '준 라이브'(Near Live) 방식으로 중계하고 있다.

또 가장 뛰어난 선수·장면, 조별 하이라이트 등 다양한

관련 이미지와 영상을 편집해 내보낸다.

'다음'이 중계권료와 관련 마케팅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총 30여억원. 국제방송센터(IBC)에 전용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네이션 통신원을 뽑아 현지에 파견하는 등 신혈을 기울였다.

FIFA(국제축구연맹)의 공식 온라인 후원사인 '야후'(http://fifaworldcup.yahoo.com/06/kr)는 경기 종료 1시간 후 하이라이트 영상을 비롯한 모든 월드컵 관련 영상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선보여 네이션들의 클릭이 잦다. 네이션들은 이곳에서 FIFA가 보유한 영상 콘텐츠와 경기 하이라이트 동영상을 보거나 다운받고 있다.

지난 3월에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때 선보인 '실시간 문자 중계'도 인기다. 11일 열린 네덜란드와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전의 경우 각 포털사이트는 매 분당 1~3개에 이를 정도의 세밀한 중계를 내보냈다.

이외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역시 생생한 월드컵 관람에 한 끝 할 것으로 보인다. 위성DMB 서비스업체 TU미디어는 13일 토고전을 맞아 KTX 월드컵 특별 응원 열차를 운영한다. 승객들은 17인치 LCD TV와 위성 DMB 폰으로 토고전을 볼 수 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 스크린도어 월드컵 광고...지하철서도 대~한민국

광주 지하철 도청역과 금남로 4가역 스크린도어(screen door)에 월드컵 래핑(wrapping) 광고물(왼쪽 사진)이 설치됐다.

래핑은 건물의 벽이나 기둥, 자동차 차체의 곁면에 텁으로 싸듯 인쇄물을 입히는 광고 기법. 붉은 바탕에 흰색으로 "대~한민국 화이팅"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지하철 광고물은 90×188cm의 크기. 전동차 문과 함께 열리고 닫히는 곳을 제외한 총 64장이 대한민국 경기가 끝나는 날까지 부착된다.

하지만 광고물의 소재가 폴리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로, 화재에 취약하다는 일부 지적도 있다.

/위직령기자 jwvi@kwangju.co.kr

## 대한민국은 지금 '베팅 월드컵'

## 내

## 기

## 얼

## 풍

## 2006 서울대 수능 평균 5점 ↑

## 2007년 정시모집 경쟁 더 치열해질 듯

2006학년도 서울대 정시 일반전형 모집에 합격한 수험생들의 수능 평균 점수가 전년도보다 5점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대입 전문기관인 청솔학원평 가연구소에 따르면 2006학년도 서울대 정시 일반전형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인문계와 자연계 학과별 학생들의 수능 평균 표준점수는 543점과 526점으로 전년도보다 모두 5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어와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을 각각 200점 만점으로 총 8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정시 학과별 학생들의 내신성적은 5.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인문계의 교과

평균은 4.62점으로 전년(4.64점)보다 0.02점 하락했고, 자연계도 2005학년도 4.59점에서 2006학년도 4.57점으로 떨어졌다.

2007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경쟁은 2006학년도보다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2007학년도 수시 모집인원이 증가하면서 정시가 그만큼 감소했기 때문이다.

수능 고득점자들의 서울대 정시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지면서 정시 학과별 학생들의 수능평균 표준점수는 2006학년도 4.57점으로 5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교원단체, 교육정책 반발

## 대정부 강경투쟁 나서

교원단체, 교육정책 반발

대정부 강경투쟁 나서

교원단체, 교육정책 반발